

“아동학대 살해죄 신설하자”

女변호사, '가중처벌' 제시 “아동 연령 19세로 올려야”

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
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가
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
아동학대치사죄만이 규정된 현행 아
동학대처벌법에 '아동을 살해한 자는
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
처한다'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
자는 주장이다.
여성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서초동
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'아동학대
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'을 열
고 "아동 살해는 일반 살인에 비해
죄질이 무겁지만 이를 엄하게 처벌할

규정이 없다"며 이같이 주장했다.
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아
동학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
신고접수는 1만9209건이었으며 아동
학대 장소로는 해당 가정 9378건으
로 가장 높았다. 학대를 한 사람은 친
아버지가 5368건, 친어머니가 3478건,
계부 236건, 계모 238건 등으로 부모
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났다.
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
치사죄만이 규정돼 있어 무기 또는 5
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
다.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
가중적 요소를 감안해도 사실상 6~9
년 사이의 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
것이 여성변호사 지적이다.
신진희 변호사는 "아동학대는 부모

에 의해 대부분 발생해 행위자와 피
해아동 간 관계 단절이 극히 어렵고
지속적·반복적으로 피해가 나타난
다"며 "폭행, 감금, 상해 유기 등 아동
학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을 살해
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
다"고 밝혔다.
이어 "지속적인 학대로 취약해진 피
해아동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
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
한다"며 "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
동에게 흉기나 마친가치라는 점을 고
려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적극 인정해
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
는 '아동'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
향 조정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

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
18세 미만인 반면 민법에서 정하는
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
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
으로 연령이 달라 보호 조치에 공백
이 생긴다는 지적이다.
신 변호사는 "아동복지법은 보호대
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미성
년자라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
한다"며 "8세 이후 학대를 당했거나
18세 이전 학대를 당해도 해당 나
이에 이르면 아직 성년이 안돼도 보
호조치가 종료된다"고 꼬집었다.
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
도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
고 입을 모았다. /박용주 기자



김수수 전주시장이 11일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유산 견학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이용두 한국국학진흥원장과 함께 전통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.

국학진흥원 직원 130여명 전주 방문

경기전 등 전통문화유산 답사

전주시가 전통문화유산 조사연구에
힘쓴 한국학 전문가들과 대한민국
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상호 공조기로
했다.
전주시는 11일 이용두 원장을 비롯
한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130여명이
전통문화유산 답사를 위해 완판본의
도시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.
한국국학진흥원 방문단은 이날 대한
민국 무형유산의 보고인 국립무형유

산원 상설전시실 견학을 시작으로 오
목대와 향교, 완판본문화관, 경기전
(전주사묘) 등 한옥마을 일원을 둘러
보며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천년
역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.
방문단은 조선시대 목판 인쇄를 대
표하는 전주의 완판본 문화와 현재
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'전주정신
의 숲' 설립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.
'전주정신의 숲'은 전주관련 각종
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
기 위한 공간으로, 시는 도서관과 기
록관 박물관을 융합한 다기능형태

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기관으로
조성할 계획이다.
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정신
의 숲(이하 정신의숲) 설립을 위한
벤처마당의 일환으로 김수수 전주시
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
한 시의원, 관계부서 공무원 등 27명
이 진흥원을 방문했으며, 양 기관은
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기록문
화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
을 모으기도 했다.
시는 향후 전주정신의 숲과 인동 한
국국학진흥원 공동IT를 구성, 양 지
역 기록문화의 진흥·발전 방안을 합
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. /김영재기자

전주 삼천동 곰솔 유전자복제

천연기념물 제355호인 삼천동 곰솔
이 유전자복제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
로 관리된다.
전주시는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남성
현), 문화재청(원장 나선화)과 공동으
로 천연기념물 노거수(老巨樹)의 유
전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삼천
동 곰솔의 유전자은행을 만들고 복제
나무를 키우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11
일 밝혔다.
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
인 삼천동곰솔의 우량 유전자를 추출
장기 보관함으로써 향후 태풍과 낙뢰
화재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
각종 재해에 대해 대비기로 했다.
이에 따라 삼천동곰솔의 적극적인 유
전자원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
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곰솔 DNA 지
문 작성에 의한 식물법의학 증거자료
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/김영재기자

아내 노출 사진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

전주지법 형사 제5다독(양시호 판
사)은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
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(성폭력범죄
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)
로 기소된 김모(40)씨에게 징역 4월에
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40시간의
성폭력 치료강화의 수감을 명했다.
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중랑
구 자택에서 아내 A씨(39)가 영당미
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
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
촬영해 같은 해 12월 안주 병동의 한
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게
시한 혐의로 기소됐다. /박용주 기자

전주 팔복동 '새뜰마을회관' 개소

생활여건 개선 거점공간 마련

나후된 전주시 팔복동 노후주거지
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
공간이 마련됐다.
전주시는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의
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
렴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
위해 한시적 주민 커뮤니티공간 '새뜰
마을회관'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.
새뜰마을회관은 팔복 새뜰마을 조성
사업 대상지 내 전주천 중로개설(추천
대교~서곡광장) 공사를 위해 매입된
건물(신화연립 101호, 102호)을 리모
델링했다.
이곳은 팔복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수
립 후 정식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기
전까지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의 소통
창구이자 주민들의 교육 및 공동체 활
동의 공간으로 활용된다.
마을회관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
후 6시까지 마을활동가가 상주해 인
근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며, 주민들은
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해 새뜰마을
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안

하고, 함께 모여 마을개선을 위한 이
야기도 나눌 수 있다.
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
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앞
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전주시가
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
원회에서 실시한 '도시 취약지역 생활
여건 개선프로젝트' 공모에 선정됨에
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, 오는 2018년
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이 투
입된다.
주요 사업내용은 팔복동 준공업지역
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(4만8000㎡)을
대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
개선, 주민역량강화, 휴먼케어 등을
추진하는 사업으로, 현재 마스터플랜
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.
시는 이달 중순부터 도로와 주차장
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에서부터 공동
이용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까지 마
울의 중요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계
획하고 결정하는 '마을회의'를 8차례
정도 진행할 계획이다. /김영재기자

보이스피싱 중국인 붙잡아

경찰 사칭 사찰 주지로부터 8000만원 인출 유도

보이스 피싱(전화금융사기)으로 80
대 노인을 유인해 8000만원을 훔치려
한 30대 중국인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
에 붙잡혔다.
덕진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으로
안주군의 한 사찰 주지스님 A(86)씨
의 돈을 훔치려 한 혐의(절도·사기)로
중국인 리모(30)씨를 구속했다.
경찰에 따르면 중국 후퉁강성 출신
의 리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A씨
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직원을 사칭
해 "은행계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
현금이 인출될 수 있다. 현금을 모두
인출해 전주의 한 대형마트 사물함에
보관하면 안전하게 처리해주겠다"고
속여 A씨가 인출한 현금을 가로채려
한 혐의를 받고 있다.
리씨의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
어난 A씨는 완주의 한 농협에서 8000
만원을 인출해 가방에 담은 뒤 리씨의
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전주로 향했
다. 전주시 인후동 교차로에서 택시
에서 내린 A씨는 전주지역 지리를 몰라
때마침 대통령의 전주 방문 경호를 위
해 배치된 경찰에게 길을 물었고, 스
님의 통화를 엿듣고 보이스피싱을 직
감한 경찰과 농협 직원 기지로 A씨가
인출한 돈은 다시 은행 금고에 맡기고
전화 속 사기꾼이 지시한 대형마트 사
물함에는 빈 가방만 넣어졌다. /김진수 기자

경찰 추적을 까맣게 몰랐던 중국인
리씨가 대형마트 사물함에서 가방을
꺼내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.
중국인 리씨는 지난 2014년 관광비
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국에 있는
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이같은 범
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
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에도 노인을
대상으로 신규 보이스피싱 형태인 절
도형 범죄를 저지른 조순족 피의자 지
모(22)씨를 검거했다.
지씨는 지난 4일 B(68·여)씨에게
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검찰청 직원을
사칭해 예금 4500만원을 인출해 집안
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.
다시 전화 건 지씨는 B씨를 전북도
청으로 유인한 뒤 미리 파악한 B씨의
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해 4500
만원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.
조사결과 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
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대전과 전주에
서 총 5회에 걸쳐 8200만원을 훔친 것
으로 드러났다.
경찰 관계자는 "보이스피싱이 절도
와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번져 범죄
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
된다"며 "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 피해
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노력하겠다"고
말했다. /김진수 기자

익산시공고 제2016-680호

익산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(안) 주민의견청취 공고

익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도로·광장) 결정(변경)(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률, 제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및 「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) 규
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윤 세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계획(안)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총괄조서

구분	입계		1류		2류		3류	
	노선 수	면적 (㎡)	노선 수	면적 (㎡)	노선 수	면적 (㎡)	노선 수	면적 (㎡)
기정 합계	18	9,419	46	14,770	8	7,670	445	156
변경 합계	10	7,996	442	905	8	7,225	435	795
기정 광로	1	5,702	425	117	1	5,702	425	117
변경 광로	1	5,702	425	959	1	5,702	425	959
기정 대로	-	-	-	-	-	-	-	-
변경 대로	-	-	-	-	-	-	-	-
기정 도로	2	610	7,954	1	380	1,296	1	470
변경 도로	2	201	2,810	1	38	303	1	185
기정 소로	13	3,086	24,989	0	1,908	16,733	3	807
변경 소로	7	2,093	15,136	4	1,487	14,523	2	552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세부조서: "계제 생략"
다.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(변경) 조서(4월 6일자 공고 표 정정합니다.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비 세부	위 치	면 적(㎡)		면적 경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	
계	-	-	-	-	2,000	212,000	-	-
제기	1	광장1	교통광장	대양동역, 송도3-1	2,000	212,000	-	면적305 (971,238)

라. 결정(변경) 사유: 장기비밀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해제입도대상 시설중
조정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(도로·광장)의 해제 및 변경

2. 열람기간: 산본 계제 익일로부터 11일간
3. 열람장소: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
4. 의견제출: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9-55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권고대상: "계제 생략"

2016년 4월 6일 익산 시장

“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”

구독·광고문의: 063-288-9700 www.jjmaeil.com